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 30년중창불사 회향 법요식이 지난 19일 만덕당 앞 잔디광장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만덕당이 접경된 가운데 청의 동자와 홍의동자의 육법공양의 식으로 시작된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율하스님은 석주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직지사는 세계의 도량으로 새단장해 인류의 평화를 실현시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30년봉사를 치하

해의 고승들이 축사를 했다.

이날 회향법요식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직지사 성보박물관(관장 이양길)도 개관대 일반에 직지사 본당사 소장 성보들이 공개됐다. 강원으로 쓰이던 청종교를 새로 단장한 99평규모의 성보 박물관에는 금동사리함(국보 제208호),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319호), 금동자불좌 6점(보물 제1141호) 등 86점의 성보가 전시됐다. 직지사는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2백80여점의 성

보일과 남북통일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민교수는 '법화경과 화엄경에서 평화통일의 원리를 찾을 수 있고 의상과 원효의 사상에서 통일이념과 실천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삼현교수(교원대)와 정병조교수(동국대)도 '신라불교 초전의 제문제' '신라고승들의 사상과 그 시대적 역할'을 통해 신라불교의 가치와 현대적 이해의 과제들을 강조했다. 이

어 종범스님(중앙승가대학교) 목장배교수(동국대) 서운길교수(동국대) 윤이흥교수(서울대)가 토론에 나서 신라불교의 계승문제를 깊이있게 짚었다.

교구본사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보호 실천단체로 창립된 직지사 환경보호회(회장 유영석)가 주관한 산사의 환경음악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극락전 앞뜰에서 열렸다.

김천=이윤호 기자

btn·BBS 제작비 '뒷걸음'

기획물 엄두 못내...질적 저하 우려 구조개선 통해 과감투자 대책 절실

불교방송과 불교TV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방송내용의 질적저하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달 초 뒤늦은 가을개편을 단행할 계획인 불교방송의 경우 기존의 제작비에서 1천여명여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등장은 힘들 것이라며 대대적인 관측이다. 또 불교TV의 경우

우도 지난 가을개편때 간혹재정방편에 따라 새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의 조정 형식을 취했다.

두 방송사의 월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BBS의 경우 8천2백만원선, btn의 경우 1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타방송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개편을 앞둔 불교방송의 제작비 삭감 방침은 개국초기 1억을 넘던 투자규모와 크게 대조된다.

이같은 제작비의 삭감방침은 방송의 내용을 빈약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선 제작자들의 우려다. 제작비의 축소는 담당PD들 제작진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기저하, 전문방송인 인건비 절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방송의 한 프로그램은 PD 1명이 연출 효과 음악을 다 담당해야 하고 출연자도 '단역' 내지 '비인기인'으로 섭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하 원인은 방송사가 갖는 재정구조의 열악성에 있다. 때문에 각종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아직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프로그램후원회가 '불국토의 아침' 등 4개 프로에 일정부분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감소추세를 감안해 제작비를 낮춰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방송사 자체의 재정구조 개선이 없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대적인 분석이다.

김원우 기자

직지사 '수행·전법도량' 새단장

19일 30년중창불사 회향 2만 사부대중 동참 성보박물관 개관 보물금 문화재등 86점 전시

했다. 이에 앞서 녹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직지사는 수행·교육·전법도량의 사명을 다할 것이며 오늘의 불사회향공덕은 2천만불자와 역사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로회의 의장 해암스님과 송석구 동국대총장 각 정당의 대표, 일본 스리랑카등

보도 분기별로 순환 전시해 일 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직지사는 30년중창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도 17일 오후 2시 설법전에서 개최 했다.

'신라불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서 민병천 교수(전 동국대총장)는 '신라



직지사 30년중창불사 회향법요식이 지난 19일 거행됐다.

토지·성보대장 신도현황등 미비

조계종, 주요사찰 중무지도감사 결과

조계종은 지난 9일부터 17일 까지 본사 및 주요사찰 96개를 대상으로 재정실태파악 및 정 기 중무지도 감사를 실시했다.

중무감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사찰들의 재산·토지·성보대장, 주지인수인계서, 산하 단체·신도현황 등이 제대로

안돼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찰 운영 업무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등산 관리, 세금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은 10월25일 재정실태 파악위원회를 소집, 재정실태 파악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는다.

제주 일부 광주BBS 청취가능

광주불교방송이 최근 제주 일부지역에서도 청취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에 제주시와 산북일부 지역에서 고성능 오디오 수신기로 광주불교방송의 청취가 가능하다는 것. 광주 불교방송은 무등산 중계소를 통해 출력 3kw로 광주 일원을 가청권으로 전파를 띄우고 있으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엔 충북 일부까지도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자기 등이 전시판매했다.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질 예정이다.

추계강공회 개최 총지종, 25일부터

불교총지종(총리원장 안효강)은 오는 25일~28일까지 총리원에서 제46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사원의 스승들이 참석하는 이번 강공회는 불신론 및 성불론에 대한 특강과 '미래의 교화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총지종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총지사 본당에서 '총지종보' 창간기념대담회를 병행 했다.

밀양 삼양사 종합불교회관 기공

천태종 밀양 삼양사(주지 월장스님)는 지난 16일 김도용 종정을 비롯 중단간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불교회관 기공식을 성황리에 거행 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종합불교회관은 총7백여평에 5층규모로 대웅전 어린이집 중무수등을 갖추고 오는 97년 1차공사를 희망할 예정이다.

패불점안식 봉행

대한법회종 경남 진주종무원(원장 유원봉)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사천시 선진공원에서 패불점안식 및 국태민안과

방송가 소식

15부 다큐 '티벳불교'

강릉MBC 20일 방영

강릉MBC는 티벳불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티벳불교(백대산PD)'를 오는 20일부터 오후 8시~9시까지 60분용 15부작으로 방영한다. 일본 추진TV 중국 감속TV가 합작하여 제작한 '티벳불교'는 제1부 '설원의 티벳불교' 등 30여편으로 티벳불교의 시원과 독자적인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MBC는 지역방송이 끝나는 11월초부터 3편으로 재편집,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MBC 다큐멘터리'로 전국에 방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교텔레비전과 관련 계약, 비디오로도 판매할 계획이다.

봉행했으며 2부에서는 친선체육대회로 회원간의 법우애를 다졌다.

90년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교통제보나 프로그램보조를 목적으로 창립된 불교방송 교통통신원불자회는 91년부터 실행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현재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4백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불교TV 영상특강 비디오제작 시판

불교TV는 매주 목요일 12:30~13:30에 방송되는 'btn 특강'을 13편의 비디오로 제작, 지난 2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사회저명인사를 초대하여 현사회 문제점과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고은시인, 김지하시인, 이근후박사, 소설가 조정래씨, 김용은 조영자교수 등이 출연했다.

합창단 지휘자 대상 31일 불교TV 설명회

불교TV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금호빌딩 15층에서 불교계 합창단 지휘자를 대상으로 불교TV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림에 등장된 인물이 비구 니스님이나 아나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린 이동원씨의 개인전에 발표된 30여점의 그림을 놓고 제 기된 의문이다. 이씨는 연꽃 미륵불상등과 머리를 깎은 채의 여자를 함께 화폭에 담은 그림들을 내놓았다. 한 스포츠신문이 비구니 운운하며 관심을 끄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교계에서도 이 전시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조계종 호법부에서도 직접 전시장을 찾아가 그림의 창작 배경 등을 작가로부터 들었다는

후문이다. 중단차원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다.

이미 전시는 끝났다. 그리고 작가는 교계 신문사들에 설명서를 보내 '비구니'란 표현은 자신의 창작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목탁 소리

창작의도와 '보는 눈'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잠재된 번뇌의 실체와 생명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비구니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 관람자들의 평이다. 다시말해 작가

의 창작의도와 관람자의 이해 사이의 간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작가는 인물화를 전공해 오며 이전에도 연꽃등을 배경으로 한 비구니의 여인을 화폭에 담아 왔었다. 그림속 여인의 머리를 깎은 것은 이번이 처음

몰론 회화에서의 한 표현양식인 사불의 의미는 불교적 '단절' '초월'의 의미보다는 내면 세계의 극단적 표현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크립트의 영향을 받았던 자신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형상화의 산물이건 이씨의 작품들이 한국인, 특히 불자들의 정서상 공감을 얻어내기는 무리가 있다. 그림이 발표됐을 때의 불교계 반응을 미리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생각지 않았다면 예술의 창의성과 대중적 신앙심의 관계를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해 반자회에는 해인원경, 은혜경등의 경전역자를 비롯

공고

범음대학에서 95학년도 하반기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당대 어산종장인 박송암 큰스님의 직강으로 안차비를 강의 하오니 불교의식의 정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 제출서류: 입학원서, 만명함관 사진 3매(입학원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함)
- 모집인원: 30명 정원제
- 강의기간: 2학기 1년
- 강의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 강사: 어산종장인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 박송암 스님 직강
- 특전: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수료증 수여,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자격 수여
- 강의과목: 안차비 1. 生前預修 2. 中禮 3. 屍多林 4. 茶毘文 5. 神衆大禮 6. 觀音禮文 7. 四明日對靈 8. 點眼儀式 9. 奠施食 10. 救病施食 11. 各種疏 12. 巡堂節次 13. 食巡節次 14. 回向 및 燒燄節次
- 개강일시: 1995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 문의전화: (02) 392-3007 ~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장 김혜경 부설 육전 범음대학 학장 박송암

부처님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불교 21인 고승대덕 콘스님 초청대법회

당신은 불교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불자여! 불교를 바로 배우시다.
 ● 부처님의 진리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책임집니다.
 ● 불교는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불교를 알아야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 21세기 한국불교를 책임질 전국 콘스님들이 부산 천마산 천왕사 큰법당 사자좌에 오르십니다. 오락에 쫓겨 이 시대에 천진하기 어려운 이 福바에 오셔서 감로의 법문을 경청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살아 숨쉬는 화엄의 묘, 법화의 묘, 반야의 묘, 열반의 묘를 얻어서 참나를 찾는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인생의 묘를 깨달아 광도중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 고승대덕 21인 프로필

법사 스님	법사 스님		
정락 큰스님	대학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보각 스님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월광 큰스님	부산불교 연합회 수석부회장	현각 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교수
임도 큰스님	조계종 전 사회위원장	해인 스님	계주 약천사 주지
성운 스님	조계종 전 사회부장	성종 스님	상주 남강사 주지
반월 스님	조계종 전 포교부장	지인 스님	서울 은평포교원 원장
진실 큰스님	조계종 전 총회위원	지허 스님	순천 선암사 주지
진실 큰스님	종도사 자비원 원장	보현 스님	본 대학 학생
신원 스님	화계사 불대학장	법산 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교수
산재(정위)스님	바른생활교육원 원장	중호 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강사
일탄 큰스님	전 법주사 주지	고산 큰스님	하동법계사 주지
효원 스님	전 법어사 장주		부산해원정사회주

졸업식: 11월 26일 오전 10시, 수계식: 11월 26일 오후 2시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94-216

교통편: 35, 190번 산북도로 남부민 2동 통사무소 하차/6.61, 16.17, 161번 남부민 2동 새마을금고 앞 하차

문의처: 부산보현불교대학 (051) 253-0681, 244-3481

주최: 부산보현불교대학
 후원: 천왕사 신도회, BBS부산불교방송, 부산일보사, 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천왕사

부산보현불교대학장 서보현 협장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筮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 3개월
 전화: (02) 723-5665

※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배우자를 찾습니다

재혼 이정환(男) 41세 31세~33세 사이
 직업 개인사업 성실한 불자여성을 찾습니다.
 호출 012-861-1688

천하 명당자리에 위치한 암자를 꾸러나갈 참신한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위치: 김해시 시내(산)
 전화: (051) 553-0383

● 조용한 산사에서 함께 할 가족을 기다립니다.
 ● 쯤인승 운전 기사님
 ● 공양주·법당 보살님 모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적정사 전화 (0342)704-8272(주) 705-3470-1(야)

현대불교

구독신청문의
 광고신청문의

7	7	7
3	3	3
7	7	7
1	1	1
0	0	0
6	6	6
9	9	9
7	2	3